

일본 독서실태 2005

글_ 백원근(재단법인 한국출판연구소 책임연구원)

✦ 성인 독서실태 : 한류 관련서 읽어본 일본인은 7퍼센트

마이니치신문이 매년 실시하는 제59회 '독서여론(読論調査)' 결과가 10월 26일자 지면에 발표됐다. 지난 9월 초 전국의 만 16세 이상 성인 4,800명에게 독서실태를 묻은 결과, 도서 또는 잡지를 읽은 사람의 비율(종합 독서율)은 71퍼센트(도서 51퍼센트, 잡지 56퍼센트)로 지난해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나 잡지를 읽는 하루 평균 독서시간은 52분으로 작년과 거의 차이가 없었으나, 매체별로 보면 주간지 독서율이 전년 대비 3퍼센트 포인트 하락한 42퍼센트로 5년째 감소세가 계속된 점이 두드러진다. 잡지시장 침체가 독서실태에도 여실히 반영됐다.

그리고 단행본과 문고·신서(新書)를 합한 도서 전체의 한 달 평균 독서량은 1.5권으로 작년에 비해 약간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1개월에 단 한 권의 책도 읽지 않은 사람은 22퍼센트이므로 일본인의 8할 정도는 한 달에 한 권 이상의 책을 읽는 셈이며, 책 읽은 사람을 기준으로 한 평균 독서량은 4.9권이나 되어 독서강국의 위상에 변화가 없음을 보여줬다.

성인의 출판물 분야별 1개월 평균 독서량 (단위 : 권)

구분	단행본	문고·신서	주간지	월간지	만화책
2003년	0.9	0.6	1.4	0.8	0.9
2004년	0.7	0.6	1.2	0.7	1.0
2005년	0.8	0.6	1.4	0.7	1.0
한국(04)	1.3		0.5		2.0

※ 자료 : 일본 마이니치신문(2003-2005년), 한국 <국민 독서실태 조사>(2004년).

일본인들이 주로 읽는 책의 분야(복수응답)는 '취미/스포츠'가 47퍼센트로 지난 5년 내내 수위를 지켰고, 3년 만에 2위를 탈환한 '일본소설' (36퍼센트) 및 '건강/의료/복지' (35퍼센트)가 그 뒤를 이었다. 생활/요리/육아(31퍼센트), 논픽션(21퍼센트), 외국소설(16퍼센트), 역사/지리 및 경제/산업(각 15퍼센트), 아동서/그림책(13퍼센트)도 독자들이 선호하는 분야로 꼽혔다.

한편 이 조사는 매년 다른 이슈를 대상으로 몇 가지 '특

집' 형 문항을 만들고 있는데, 올해에는 한류 관련서 및 인터넷 관련 항목이 있어 흥미롭다.

■ **한류 불과 독서** : KBS 드라마 <겨울연가>가 NHK에 방송되며 큰 반향을 일으킨 이래,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일본인들의 관심이 급속히 높아졌고 관련서도 대량 판매됐다. 이러한 한류 관련서를 읽어본 사람의 비율은 7퍼센트로 조사됐다. 그 독자층의 내역을 보면 여성이 8할, 특히 4, 50대 여성이 각각 2할씩을 차지해 중년 여성이 한류 붐의 주역임을 재확인시켰다. 이들이 읽어본 장르(복수응답)는 '드라마 관련 소설'이 56퍼센트로 가장 높고, '드라마 해설서' (49퍼센트), '인기배우 사진집' (33퍼센트), '한국여행 가이드북' (28퍼센트), '한국어 학습서' (15퍼센트) 등이 뒤를 이었다. 이런 결과에 대해 신문은 "한국이라는 나라나 한글에 대한 관심이라기보다는 특정 드라마 및 관련 배우의 팬이라는 성향"이 발견된다며 한류의 성격을 냉정히 해석했다.

■ **인터넷과 독서** : 인터넷 게시판을 옮긴 《전차남(電車男)》이 밀리언 셀러를 기록하는 등 인터넷 콘텐츠를 활용한 책들이 인기를 모으는 가운데, 인터넷상의 각종 사이트에 게재된 소설, 에세이, 시, 일기를 읽어보았다는 사람은 19퍼센트였다. '인터넷 독서'의 비율은 10대 후반 50퍼센트, 20대 44퍼센트, 30대 27퍼센트, 40대 이상 20퍼센트 순으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인터넷과 영상물로 인해 '활자 이탈'이 우려돼 왔으나 실제로는 '활자 회귀'의 징조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의 지적이다. 참고로 요미우리신문 조사 결과(2005. 10. 28)에서는 "필요한 정보를 인터넷으로 얻고 출판물을 구입하지 않은 경험이 있는가"에 대해 34.3퍼센트가 '있다'고 응답했는데, 연령이 낮을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그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터넷시대의 출판환경 급변을 보여준다.

한편 인터넷서점 이용률은 10퍼센트(가장 이용률이 높은 2, 30대는 18퍼센트)로 지난 2000년의 2퍼센트에 비해 대폭 증가

구분	도서 독서율(%)			잡지 독서율(%)			도서 독서량(권)			잡지 독서량(권)		
	초	중	고	초	중	고	초	중	고	초	중	고
2005년	94	75	51	76	71	68	7.7	2.9	1.6	4.7	3.8	2.9
한국(04)	90	80	62	15	20	21	8.2	3.3	2.1	0.3	0.3	0.4

* 자료 : 일본 마이니치신문(2005년), 한국 <국민 독서실태 조사>(2004년).

했다. 이용하는 이유는 '편리한 검색', '서점에 갈 필요가 없어서', '시간 제약이 없는 주문', '(일반서점에 비해) 주문 도서의 빠른 도착' 이 주로 꼽혔고, '근처에 서점이 없어서', '일정 금액 이상은 무료 배송이므로' 등의 소수 의견이 있었다. 할인 판매가 전혀 없는 일본 인터넷서점 풍경이다.

■ **공공도서관 이용률** : 지난 1년간 공공도서관을 이용해본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작년과 동일한 29퍼센트였다. 연령별로는 20대가 40퍼센트, 30대가 37퍼센트로 작년에 비해 각각 7포인트, 2포인트 증가한 데 비해 10대 후반이 34퍼센트로 19포인트 감소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오락과 취미를 위한 정보수집' (58퍼센트), '공부·연구' (45퍼센트), '시간을 보내기 위해' (29퍼센트) 등이었으며, 비이용자들의 경우에는 '바쁘고 시간이 없다'는 점에 과반수(52퍼센트)가 응답했다. 도서관이 정보센터 또는 여가 선용의 장으로 활용되는 추세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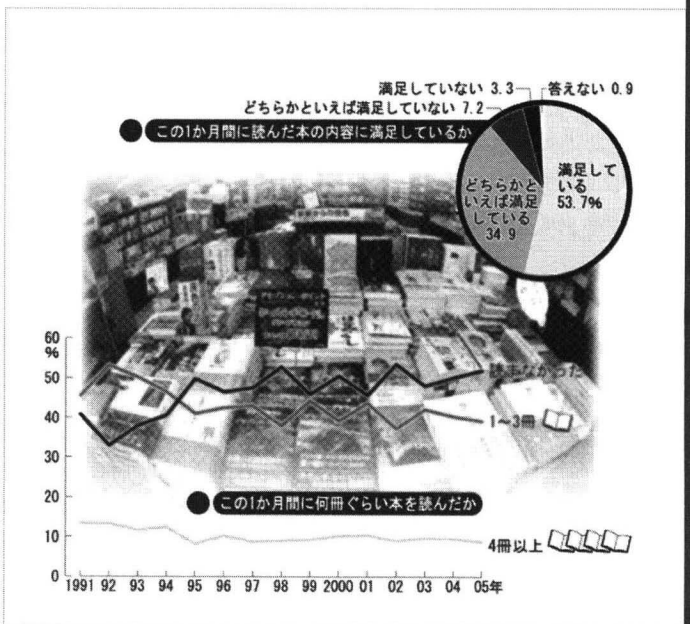
✦ **초·중·고 학생 독서실태**
: 학생들이 바라는 학교도서관은 '미디어센터'

지난 7월 제정된 문자·활자문화진흥법에 의해 처음 실시된 '문자·활자문화의 날' 이자 독서주간 시작일인 10월 27일, 마이니치신문이 전국학교도서관협의회와 공동으로 조사한 제51회 학교독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지난 6월 전국 115개교 1만 1,519명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1개월 평균 도서 독서량(교과서, 참고서, 만화, 잡지 제외)은 초등학생 7.7권, 중학생 2.9권, 고등학생 1.6권으로 작년에 비해 중고생 독서량이 약간 감소했다. 아울러 한 달에 단 한 권의 책도 읽지 않는 학생의 비율은 초등학생 6퍼센트(전년대비 1포인트 감소), 중학생 25퍼센트(동 6포인트 증가), 고등학생 51퍼센트(동 8포인트 증가)로 역시 중고생의 독서율 감소가 두드러졌다. 이에 대해 학교도서관협의회는 예년에 비해 학생들이 읽기에 적합한 베스트셀러가 줄어든 결과이며, 과거 평균치와 비교해 절대적인 독서 수준의 감소는 아니라고 풀이했다.

학생들은 독서량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재미있는 내용', '싼 가격', '재미있는 제목'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학교도서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미있는 책' 및 '최신 CD/비디오/DVD 비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아 학교도서관의 미디어센터 역할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됐다.

한국과 일본의 평균적인 독서율, 독서량은 성인이나 학생을 막론하고 매우 흡사해 보인다. 그러나 책을 읽는 독서인구 기준 월평균 독서량은 일본의 절반(일본 4.9권, 한국 2.5권) 수준이고 잡지 독서량은 일본에 비해 성인 1/4, 학생 1/10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고 문제의 핵심이 독자에게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독서환경, 출판산업 혁신을 통한 수요 창출 노력이 그 열쇠가 아닐까. **▶▶▶**



요미우리신문 2005.10.28. 그래픽 사진. 지난 15년간 일본인의 한 달 평균 독서량을 보여주는 곡선 그래프(읽지 않았다 50퍼센트 전후, '1~3권' 40퍼센트 전후, '4권 이상' 10퍼센트 전후) 및 책 내용에 대한 만족도를 나타내는 원형 그래프(만족 53.7퍼센트, 만족하는 편 34.9퍼센트, 비교적 불만족 7.2퍼센트, 불만족 3.3퍼센트).